

광주 소비자물가 안정 불구 농축수산물물은 '고공행진'

7월 물가상승률 전년비 1.7% ↑
 전국 17개 시·도 중 최저 기록
 수박 57.3%·달걀 20.3% '경중'
 전남 소비자물가 전년비 2.1% ↑



7월 광주 소비자물가가 안정세를 나타냈음에도 불구하고 농축수산물 물가는 주요 품목 가격이 상승해 소비자의 부담이 이어지고 있다.
 5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7월 광주·전남 소비자물가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광주의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같은달 보다 1.7% 상승했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제주(1.7%)와 함께 가장 낮은 상승률이며 대전(1.9%), 대구·전북·경북(2.0%)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광주 소비자물가는 올해 2월 반짝 반등한 이후 3·4월(1.9%), 5월(1.5%), 6월(1.9%)까지 5개월째 1%대의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체감물가를 반영하는 생활물가지수는 1.7%

상승했고 식품은 2.9%나 올랐다.
 식료품·비주류음료(2.7%) 가운데서는 커피(16.0%) 등은 많이 올랐으나 배(-45.4%), 사과(-11.7%) 등은 내렸다.
 또한 가정용품·가사서비스(3.0%) 부문과 음식·숙박(3.2%) 부문도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크게 웃돌았다.

생활물가지수는 일상생활에서 자주 구매하는 48개 품목 중 구입 빈도가 높은 144개를 선정해 체감물가를 반영한다.
 지난달 광주의 농축수산물 물가는 전년과 비교해 2.3%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품목별로 보면 농산물 물가는 수박(57.3%), 보리쌀(38.8%), 찹쌀(36.9%) 등이 많이 올라 1.0% 상승했다.
 축산물은 달걀(20.3%), 닭고기(5.6%), 꿀(4.2%) 등의 인상으로 1.1% 올랐고 수산물은 게(20.3%), 조기(10.0%), 고등어(18.0%) 등이 올라 무려 9.1%나 치솟았다.
 이 같은 농수산물 가격 상승 이유로 호남통계청은 연일 30도를 웃도는 폭염과 극한 호우 등 이상 기후로 인한 작황 부진과 가축 폐사, 수은

상승에 따른 어획량 감소 등의 영향으로 분석했다.
 7월 전남의 소비자물가와 생활물가지수는 지난해 같은달보다 각각 2.1%, 2.4% 상승했다.
 식품은 3.2%가 올랐으며 지출목적별에서는 식료품·비주류음료(3.3%)와 가정용품·가사서비스(3.2%), 음식·숙박(2.9%), 기타 상품 서비스(5.2%) 등이 상승세를 보였다.
 지난달 전남의 농축수산물 물가도 전년 같은 달 대비 2.3%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품목별로 보면 농산물 물가는 배(-41.6%), 당근(-39.9%), 생강(-25.2%) 등에서 내려 0.9% 하락했지만 축산물(꿀 9.8%, 닭고기 8.0%)과 수산물(갈치 19.4%, 김 12.9%)에서 크게 올라 물가를 끌어올렸다.
 /안태호기자



광주신세계 리뉴얼 광주신세계가 영평선·골프·아동·F&B 등 트렌드 반영한 30여개 신규 브랜드를 입점·리뉴얼 오픈한 5일 본관 4층에 신규 오픈한 송지오퍼리 매장 에서 고객이 옷을 살펴보고 있다. <광주신세계 제공>

스마트인재개발원-베스핀글로벌, AI 인재 육성 맞춘

교육 현장에 AI 기술 실용화

㈜스마트인재개발원은 5일 "이날 AI 매니저 드 서비스 전문 기업 베스핀글로벌과 'AI 디지털 인재 양성'과 AI Agent 서비스 확산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의 핵심 역량을 결합해 인공지능 시대를 선도할 미래 인재를 육성하고 AI 기술의 교육기관 및 학교 현장 실증을 가속화하기 위한 중요한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양 기관은 향후 AI 및 디지털 핵심 기술 교육 과정을 공동 설계·운영함으로써 실무형 AI 인재를 양성하고 AI 에이전트(AI Agent) 기반 서비스 실증사업을 통해 실제 활용 모델을 확산시키며 향후 라이선스 사업화까지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차준섭 스마트인재개발원 이사장은 "이번 협력을 통해 AI 핵심 기술 교육을 고도화하고 실제 교육 현장에서 실증 가능한 AI Agent 서비스를 추진해 구체적인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전했다.
 /안태호기자

광주상의 '가전산업 안전워크업' 수혜기업 간담회

청년 채용 후 환경 개선 장기 근속 유도

광주상공회의소는 5일 3층 회의실에서 "2025년 가전산업 안전워크업 지원사업" 수혜기업 간담회를 열고 사업의 추진 방향과 안전설비 지원 절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의 연계 방안 등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고용노동부와 광주시가 공동 추진하는 "2025년 지역혁신프로젝트-가전내일 청년 투화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지역 가전기업이 청년 채용 이후 작업환경을 개선, 고용 안정과 장기 근속을 유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이번 사업은 안전설비 지원에 그치지 않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협력해 수혜기업에 대한 안전 진단 또는 위험성 평가 컨설팅을 병행 제공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지닌다.
 공단 전문가들이 각 기업의 작업환경을 직접

살펴보고 현장에서 필요한 개선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설비 지원뿐 아니라 기업의 안전관리 역량까지 강화할 수 있도록 한다.
 이날 간담회에는 광주지역 가전기업 11개사가 참석했으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실무 전문가들도 함께해 사업 취지와 공단 연계 절차 등에 대해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장지현(주원일 대표)은 "작업장에 팬, 덕트 하나 더 설치한다고 모든 유해 요소가 사라지진 않겠지만, 그 작은 변화가 직원들에게 '회사가 우리 안전을 생각하고 있구나' 하는 신호가 될 수 있다고 믿는다"며 "안전 설비 교체를 넘어 현장을 돌아보고 더 나은 작업환경에 대해 고민할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광주상공회의소는 이번 간담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향후 지원 품목과 추진 기준을 보다 유연하게 운영할 계획이다.
 /임재만기자

농어촌공 전남본부, 건설현장 폭염 장기화 총력 대응

온열질환 예방수칙 이행 집중 점검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는 폭염 장기화에 따라 건설현장 근로자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근로환경 제공을 위해 온열질환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남지역본부는 온열질환 예방조치 확인을 위한 건설현장 특별 안전점검, 폭염작업시 법적 의무사항 전파, 근로자 대상 온열질환 예방 교육, 현장 근로자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의견 수렴 등 온열질환 예방 노력을 지속 추진 중이다.
 특히 지난달 30일부터 31일까지 2일간 관내 전

건설현장 102지구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에서는 최근 기록적인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건설현장 근로자들의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온열질환 예방 5대 기본수칙인 물, 바람 그늘, 휴식, 보냉장구, 응급조치에 대한 현장별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했다. 이어 지난달 17일부터 시행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제33도 33℃ 이상 폭염작업 시 매일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 작업시간대 조정 등 관련 법적 의무사항을 안내하고 철저히 이행되도록 강조했다.
 또한 작업전 실시되는 TBM을 통해 현장 근로자에게 온열질환 예방 교육을 적극 전개함으

로써 온열질환 예방 기본수칙이 현장에 정착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있으며 현장 근로자들의 폭염 작업시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현장에서 신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
 김재식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장은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 심화에 대응하기 위해 앞으로도 건설현장 온열질환 예방조치를 강화하고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실시해 근로자에게 안전한 근로환경 제공과 건강한 여름을 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임재만기자

광주매일신문 전통시장활성화 연중 캠페인

"전통시장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일어납니다"

서민들의 삶의 애환이 깃든 '전통시장'이 장기화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양하고 편리한 유통시설이 들어서면서 '전통시장'은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갑니다. 각 자치단체에서는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광주매일신문은 시·도민들의 지혜를 모아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연중 캠페인을 펼치겠습니다.

지리산의 넉넉함을 담은
인정 가득한 곳

구례5일시장

◎ 장이 서는 날 ◎
매월 3일, 8일로 끝나는 날

위치 : 구례군 구례읍 5일시장작은길 20

주최 : 광주매일신문 · 광주매일 TV

후원 : 구례

광고문의 : 062)650-2099